

포천시 문화예술단체장 11 포천YMCA살림합창단 단장 **윤명순**

# 불우시설 방문 연주활동 펼칠 계획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 모든 꽃들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우리에게 인사하는 이 계절에,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뜻이 오를 때까지 왔습니다. 이 작은 창단 연주회를 통해 포천이 거룩한 이들의 아름다운 도성이 되길 원하며 YMCA가 우리고장을 밝고 신나는 도시로 만드는 단체로 포천 시민에게 공기청정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원 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여러분들! 머 리속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은 지난해 11월 단원 45명으로 창단하고 일주일에 1회 연습을 통해 갈고 닦은 기쁨으로 4월12일 창단공연에 가진 포천 YMCA살림합창단 윤명순 단장이 창단공연 팸플릿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포천YMCA살림합창단(이하 합창단)은 포천 기독교교인 여성들이 찬양을 통해 중심이 되고 성가를 연주해 왔으며 포천YMCA가 창립을 준비하면서 합창단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윤 단장은 “창단공연이 오후 7시에 시작되었는데 객석이 사람이 다 들어선 것은 7시30분이 되었다 단 한 명의 관객이라도 있으면 약속된 시간에 공연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7시 정각에 공연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합창단 창단배경에 대해 윤 단장은 “포천군이 시로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YMCA 등 시민단체의 활동이 미약한 실정으로 YMCA 단체를 통해서 문화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밝고 푸르른 더 좋은 도시로 바꾸고 이를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현재는 단원 모두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남성 단원들과 함께 혼성합창단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합창단은 음악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우리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시설을 방문해 중창단을 구성하여 음악연주회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창단공연은 찬양 7곡, 위십 7곡, 마늘남성합창단과 협연1곡 등의 프로그램으로 포천시민들 앞에서 첫 선을 보였다.

이날 창단공연에 관람한 관객들은 한마디로 ‘쇼킹’한 공연이었으며 비전공자들이 모여서 저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연출할 수 있을까 하는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창단공연을 성공적으로 선보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윤 단장은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는 전창영 교사의 적극적인 헌신과 섬김 때문이라고 밝힌다. 전 교사는 단원들을 섬기는 자세로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단장은 “이번 창단공연에 포천시지부, 정우식품 등에서 후원을 해주셨으며 작은 정성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고 한다. 특히 단원들 개개인이 직접 투자한 것은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 윤 단장은 “포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시민들은 물론 회원들의 협조와 후원단체나 후원회사가 많이 나타나시면 활동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윤 단장은 앞으로 합창단의 발전을 위해서 단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연습에 충실하고 연습시간을 잘 지켜 주시면 하는 바램”이라고 한다.

포천시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며 “포천시 공무원들이 어렵게 노력하는 합창단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단장은 특히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단장 인사말은 물론이고 기관장 인사말을 생략하고 공연만 깊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고 한다. 이는 오직 연주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창단공연에 소요된 예산은 1천 여만원으로 포천시,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정우식품 등에서 후원을 해 주셨으며 작은 정성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고 한다. 특히 단원들 개개인이 직접 투자한 것은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 윤 단장은 “포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시민들은 물론 회원들의 협조와 후원단체나 후원회사가 많이 나타나시면 활동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윤 단장은 앞으로 합창단의 발전을 위해서 단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에 대해 “연습에 충실하고 연습시간을 잘 지켜 주시면 하는 바램”이라고 한다.

포천시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공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며 “포천시 공무원들이 어렵게 노력하는 합창단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앞서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윤 단장은 “이번 창단공연에 함께 해주신 드라마워십팀 이상옥 교수님과 단원 여러분, 그리고 포천마늘남성합창단, 포천시 소년소년합창단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 인사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단공연을 가진 포천 YMCA합창단 단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단장 윤명순 ▶총무 엄송옥 ▶지휘 전창영 ▶반주 이민정 ▶소프라노 파트장 박경희 ▶김금순 ▶김신애 ▶김영미 ▶김은경 ▶윤연화 ▶이순희 ▶이정임 ▶이현숙 ▶함은숙 ▶유은희 ▶심미희 ▶엄송옥 ▶유순애 ▶장미향 ▶정영미 ▶메조소프라노 파트장 조혜정 ▶권동진 ▶유한옥 ▶임재옥 ▶전은임 ▶김연순 ▶이근옥 ▶이명자 ▶박향숙 ▶윤명순 ▶알토 파트장 김윤순 ▶김기현 ▶김숙자 ▶박은희 ▶이소영 ▶이영숙 ▶박영숙
-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韓國의 선비정신 · 62

### 부끄럽게 사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죽는 것만 못하다

송인수는 종종때 문과에 합격하고 정9품에 해당하는 홍문관 정자로 들어갔다. 당시는 기묘사화를 일으켰던 훈구파와 왕실의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다. 따라서 선비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고, 바른 말을 외워야 할 언관(言官)을 조차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하지만 송인수는 꿈은 절개로 끝까지 직언을 멈추지 않았다. “임금이 자신의 허물을 듣기 싫어하면 마침내 언관을 죽이게 되고, 결국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언관을 죽이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으니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김안로가 실각한 후 송인수는 유배지에서 돌아와 대사헌에 복귀하였다. 하지만 조정은 다시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송인수는 이들을 비판하다 전라도 관찰사로 쫓겨 갔다가 인종이 즉위한 후 다시 대사헌에 올랐다.

그 무렵 윤원형이 협조참판이 되자 송인수는 여러 날 동안 이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윤원형은 곧바로 품계를 뛰어넘어 공조참판에 임명되었다. 송인수는 이것이 부당한 인사라며 두 달 동안이나 임금에게 강력히 아뢰었다.

송인수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하자 주위의 친구는 물론 매부인 성재원까지 윤원형의 세도를 두려워해 그만둘 것을 권유했다.

“공조참판이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윤원형이 세도를 부리고 있으니 자네만 해를 입게 될 것일세.”

그러자 송인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찌 윤원형 같은 인간을 재상의 반열에 둘 수 있겠습니까?”

얼마 후 을사사화가 일어나 그는 또 귀양을 떠나게 되었다.

인종이 즉위 8개월만에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하자 문정왕후가 수렴정정을 계속하였다. 점차 정사가 문란해지자 양재역에 이란 벽사가 붙었다.

“계집 임금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가 밑에서 권세를 휘둘러 나라가 망하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어찌 한심한 일이지 않은가?”

벽사사건이 일어나자 정언각(鄭彦覺)이 이기를 찾아가 모함을 하였다.

“송인수가 오랫동안 대사헌으

로 있으면서 선비들에게 부박한 습성을 길러 오늘의 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뒷날의 폐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를 중형에 처하십시오.”

이에 문정왕후는 명종을 시켜 송인수에게 사약을 내리라고 부추겼다.

어머님 도착하던 날은 마침 생일 하루 전이었다. 송인수는 이미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 후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송인수의 이름을 불렀다. 하인들이 나가보니 의금부 도사가 군사를 이끌고 대문 앞에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뒤로 넘어지며 허겁지겁 뛰어가 송인수에게 말했다. 그러나 송인수는 태연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사형 명령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급할 수가 없겠지.”

송인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면서 밖으로 나왔다. 아내가 그의 허리를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으나 그는 허리를 풀어버리고 나가며 말했다.

“곧 이 때를 가지고 나오시오. 어명이 내려왔으니 조금이라도 늦을 수 없소.”

이윽고 송인수는 마당에 무릎 꿇고 의금부 도사에게 말하였다.

“일전에 어명을 듣고 나서 죽기를 바라오.”

도사가 임금의 전지(傳旨)를 보이자 그는 단박에 읽어 내렸다. 전지에는 자신의 죄가 조목 조목 적혀 있었다. 전지를 읽은 송인수가 고개를 처들고 말하였다.

“간신들의 모함입니다!”

그런 다음 송인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떠나는 마당에 이런 물골로 갈 수는 없지 않겠소. 목욕재계 하고 나올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송인수는 곧 깨끗이 몸을 씻은 후 손톱과 발톱을 깎았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다시 깨끗한 화를 일으켰던 훈구파와 왕실의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다. 따라서 선비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고, 바른 말을 외워야 할 언관(言官)을 조차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송인수는 꿈은 절개로 끝까지 직언을 멈추지 않았다. “임금이 자신의 허물을 듣기 싫어하면 마침내 언관을 죽이게 되고, 결국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언관을 죽이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으니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김안로가 실각한 후 송인수는 유배지에서 돌아와 대사헌에 복귀하였다. 하지만 조정은 다시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송인수는 이들을 비판하다 전라도 관찰사로 쫓겨 갔다가 인종이 즉위한 후 다시 대사헌에 올랐다.

그 무렵 윤원형이 협조참판이 되자 송인수는 여러 날 동안 이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윤원형은 곧바로 품계를 뛰어넘어 공조참판에 임명되었다. 송인수는 이것이 부당한 인사라며 두 달 동안이나 임금에게 강력히 아뢰었다.

송인수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하자 주위의 친구는 물론 매부인 성재원까지 윤원형의 세도를 두려워해 그만둘 것을 권유했다.

“공조참판이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윤원형이 세도를 부리고 있으니 자네만 해를 입게 될 것일세.”

그러자 송인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찌 윤원형 같은 인간을 재상의 반열에 둘 수 있겠습니까?”

얼마 후 을사사화가 일어나 그는 또 귀양을 떠나게 되었다.

인종이 즉위 8개월만에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하자 문정왕후가 수렴정정을 계속하였다. 점차 정사가 문란해지자 양재역에 이란 벽사가 붙었다.

“계집 임금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가 밑에서 권세를 휘둘러 나라가 망하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어찌 한심한 일이지 않은가?”

벽사사건이 일어나자 정언각(鄭彦覺)이 이기를 찾아가 모함을 하였다.

“송인수가 오랫동안 대사헌으

로 있으면서 선비들에게 부박한 습성을 길러 오늘의 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뒷날의 폐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를 중형에 처하십시오.”

이에 문정왕후는 명종을 시켜 송인수에게 사약을 내리라고 부추겼다.

어머님 도착하던 날은 마침 생일 하루 전이었다. 송인수는 이미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 후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송인수의 이름을 불렀다. 하인들이 나가보니 의금부 도사가 군사를 이끌고 대문 앞에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뒤로 넘어지며 허겁지겁 뛰어가 송인수에게 말했다. 그러나 송인수는 태연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사형 명령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급할 수가 없겠지.”

송인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면서 밖으로 나왔다. 아내가 그의 허리를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으나 그는 허리를 풀어버리고 나가며 말했다.

“곧 이 때를 가지고 나오시오. 어명이 내려왔으니 조금이라도 늦을 수 없소.”

이윽고 송인수는 마당에 무릎 꿇고 의금부 도사에게 말하였다.

“일전에 어명을 듣고 나서 죽기를 바라오.”

도사가 임금의 전지(傳旨)를 보이자 그는 단박에 읽어 내렸다. 전지에는 자신의 죄가 조목 조목 적혀 있었다. 전지를 읽은 송인수가 고개를 처들고 말하였다.

“간신들의 모함입니다!”

그런 다음 송인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떠나는 마당에 이런 물골로 갈 수는 없지 않겠소. 목욕재계 하고 나올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송인수는 곧 깨끗이 몸을 씻은 후 손톱과 발톱을 깎았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다시 깨끗한 화를 일으켰던 훈구파와 왕실의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다. 따라서 선비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고, 바른 말을 외워야 할 언관(言官)을 조차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송인수는 꿈은 절개로 끝까지 직언을 멈추지 않았다. “임금이 자신의 허물을 듣기 싫어하면 마침내 언관을 죽이게 되고, 결국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언관을 죽이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으니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김안로가 실각한 후 송인수는 유배지에서 돌아와 대사헌에 복귀하였다. 하지만 조정은 다시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송인수는 이들을 비판하다 전라도 관찰사로 쫓겨 갔다가 인종이 즉위한 후 다시 대사헌에 올랐다.

그 무렵 윤원형이 협조참판이 되자 송인수는 여러 날 동안 이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윤원형은 곧바로 품계를 뛰어넘어 공조참판에 임명되었다. 송인수는 이것이 부당한 인사라며 두 달 동안이나 임금에게 강력히 아뢰었다.

송인수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하자 주위의 친구는 물론 매부인 성재원까지 윤원형의 세도를 두려워해 그만둘 것을 권유했다.

“공조참판이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윤원형이 세도를 부리고 있으니 자네만 해를 입게 될 것일세.”

그러자 송인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찌 윤원형 같은 인간을 재상의 반열에 둘 수 있겠습니까?”

얼마 후 을사사화가 일어나 그는 또 귀양을 떠나게 되었다.

인종이 즉위 8개월만에 승하하고 명종이 즉위하자 문정왕후가 수렴정정을 계속하였다. 점차 정사가 문란해지자 양재역에 이란 벽사가 붙었다.

“계집 임금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가 밑에서 권세를 휘둘러 나라가 망하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어찌 한심한 일이지 않은가?”

벽사사건이 일어나자 정언각(鄭彦覺)이 이기를 찾아가 모함을 하였다.

“송인수가 오랫동안 대사헌으

로 있으면서 선비들에게 부박한 습성을 길러 오늘의 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뒷날의 폐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를 중형에 처하십시오.”

이에 문정왕후는 명종을 시켜 송인수에게 사약을 내리라고 부추겼다.

어머님 도착하던 날은 마침 생일 하루 전이었다. 송인수는 이미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 후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송인수의 이름을 불렀다. 하인들이 나가보니 의금부 도사가 군사를 이끌고 대문 앞에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뒤로 넘어지며 허겁지겁 뛰어가 송인수에게 말했다. 그러나 송인수는 태연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사형 명령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급할 수가 없겠지.”

송인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면서 밖으로 나왔다. 아내가 그의 허리를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으나 그는 허리를 풀어버리고 나가며 말했다.

“곧 이 때를 가지고 나오시오. 어명이 내려왔으니 조금이라도 늦을 수 없소.”

이윽고 송인수는 마당에 무릎 꿇고 의금부 도사에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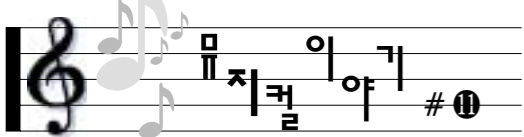
“일전에 어명을 듣고 나서 죽기를 바라오.”

도사가 임금의 전지(傳旨)를 보이자 그는 단박에 읽어 내렸다. 전지에는 자신의 죄가 조목 조목 적혀 있었다. 전지를 읽은 송인수가 고개를 처들고 말하였다.

“간신들의 모함입니다!”

그런 다음 송인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떠나는 마당에 이런 물골로 갈 수는 없지 않겠소. 목욕재계 하고 나올 터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 재즈(Jazz)의 성장과 1927년 이전의 뮤지컬 코미디(Musical Comedy)

보드빌과 레뷰를 포함해서 1927년 이전까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었던 작품들 중 어느 것도 진정한 뮤지컬 코미디(Musical Comedy)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비록 조지 M. 코한(George M. Cohan)이 1904년에 <리틀 조니 존스(Little Johnny Jones)>를 발표하여 미국 뮤지컬 코미디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대부분은 문제제기였다. <리틀 조니 존스(Little Johnny Jones)>를 포함해서 오늘날 리바이벌 되는 작품들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바로 이를 증명한다. 당시의 작품들 모두가 즐거이만 아니라 캐리커처 취향했으며 세월이 지나면서 대부분은 사장(死藏)되어 버리고 오늘날에는 노래만 살아남았다. 미국과 유럽에서 노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리틀 조니 존스(Little Johnny Jones)>라는 작품의 제목과 줄거리는 몰라도 '브로드웨이 에 안부를 전해주요(Give My Regards to Broadway)'는 한 번쯤 들어봤을만한 노래 가락일 것이다. 보드빌 시대에는, 적어도 1927년 이전까지는 노래와 춤과 코미디의 스타들의 시대였다. 앞서 살펴본 패니 브라이스(Fanny Brice)나 앨 졸슨(Al Jolson) 등 대

형 스타들이 공연의 내용보다는 자신의 스타성을 과시하면서 무대를 압도했으며 브로드웨이를 세계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대부분 작곡가들도 대본보다는 스타들을 위해 노래를 작곡했다. 이것이 대본이 허술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였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의 끝은 유럽제일주의 종말을 가져왔다. 전쟁 승전국인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패권도 여지없이 무너트렸다. 또한 1920년대의 재즈(Jazz)의 독특한 스타일 확립은 전 세계의 문화가 미국문화로 대체되는 현상을 가져왔고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커졌다. 보드빌이나 레뷰 공연에서도 미국의 재즈가 본격적으로 무대음악으로 쓰이면서 유럽 무대에도 재즈와 결합한 다양한 뮤지컬의 시도를 가능케 했다.

재즈는 17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온 노예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흑인들은 유럽의 음악과 자신들의 음악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불렀고 1863년 노예제도가 폐지되자 공식적으로 흑인음악이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재즈의 특징은 틀에서 벗어

난 다양한 즉흥성에 있었는데 무대에 오르면서 즉흥성은 배제되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재즈의 생기와 빠른 박자와 블루스(Blues)의 우울한 감정의 표현은 미국과 유럽의 백인 작곡가들 사이에서도 그 리듬이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이것이 바로 재즈의 전신인 래그타임(Ragtime)이라는데 1880년대부터 유행한 피아노 음악이었다.

래그타임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스코트 조플린(Scott Joplin, 1868~1917)을 들 수 있는데 폴 뉴먼(Paul Newman)과 로버트 레드포드(Robert Redford)가 주연한 영화 <스팅(The Sting, 1973)>의 주제곡인 '엔터테이너(The Entertainer)'는 스코트 조플린이 작곡한 대표적인 래그타임이다. 대중적으로는 1911년 어빙 버린(Irving Berlin)의 <알렉산더스 래그타임 밴드(Alexander's Ragtime Band)>라는 곡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래그타임은 당음을 즉, 싱코페이션(Syncopation)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즉흥연주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대음악으로 적합했다. 처음에 미국의 재즈는 보드빌과 발레스크처럼 싸구려 술집과 매춘이 성행하는 곳에서 발전했다. 뉴올리언스의 스토리

빌(Storyville)은 공창(公娼) 허가지였으며 미국의 재즈 음악을 형성하는 근거지 역할을 했다. 전속음악가가 있을 정도로 1910년대까지 상황을 이루었는데 이후 재즈가 본격적인 무대음악으로 쓰이면서 전 세계로 전파되어 나갔다.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래그타임의 유행과 재즈의 성장은 뮤지컬 코미디의 음악적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렇지만 대본은 역시 탄탄한 구성을 갖추지 못했다. 자기 자신이 극장이었으며 밴드였고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던 영국의 작가 노엘 카워드(Noel Coward, 1899~1973)의 <소용돌이(The Vortex, 1924)>, <건초열(Hay Fever, 1925)> 등 대표적인 연극작품들을 발표했지만 작곡가, 작사가, 배우로서의 노엘 카워드는 이때까지 레뷰나 보드빌을 뛰어넘는 진정한 뮤지컬 코미디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96)

## 포천의 제전요 「抱川之祭典謠」

「제전요(祭典謠)」라 함은 제를 올리러 묘소를 찾아가는 길의 노래를 불러 지루한 산노름을 달랜 노래를 말한다. 조선조 말기에서 시작되어 구전(口傳)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나 확인할 길이 없다. 소개해 보기로 하자.

「벽오동풍에 전일(奠日)을 당하여/임의 분묘를 찾아 가서/분묘 앞에 황토요/황토 위에 제석(祭席) 깔고/제석 앞에 좌면지 깔고/(피고) 좌면지 위에 상간지 펴고/차려간 음식 펼쳐 놓 제/오병 병향과 석학, 충·효·열 인물과 의병 활동으로 순국하신 우국충정의 고귀한 정신 등을 배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답사 후에는 소감문을 제출 받아 시상 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리 새투를 채며/왕실미마리 채며/떡기 좋은 녹두나물/쪄쪄개 채 콩나물 넣어 놓고/삼계탕무 인척의 머투 다래며/함정의 양요 리며/연안 배천 황밤 대추/경상도 풍기 준수/수원 홍시도 차려 놓고/능라도 썩 건너 산모퉁이 돌아/동글동글 청사발음/대모 장도드 는 칼로 웃꼭지 스프트 돌려/장물 행청 솔로부어/은동 굴반 수북저 로/씨만 술술 골라 내어/한 그릇에 한 그릇에/한 그릇은 경이로구나/술이러면 이적선지경 포도주며/홍홍백서/좌포우해 오기랑 실과를/전자 우전으로 벌여 놓 제/인삼 녹용에 도라지 채며/고비 고

주 홍 소주/모든 술은 다 그만 두고 청명한 약주술을/노자자 아무 배에/가득히 찻 잔 부어/잔 같이 퇴배하고 두잔 부어 분산 묘 전에/재배하고 석잔 부어 올린 후에/웃은 벗어 나무에 걸고/그냥 그 자리에 두 다리 쪽 뺨고/터벌씩 주저앉아/오열 장탄 할 뿐이지/뒤 따라 올 사람 전혀 없구나,

이 민속놀이 제전요를 읊조리다 보면 내 고향 포천 사람들이 얼마나 제사를 지내는데 멋있어 진 생각을 하겠나? 알 수 없어 매우 재미있고 흥미롭다 아니 할 수 없다. 다른 고장에도 이런 제전요가 있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

나 우리 고장의 노래라는 점에서 애착이 간다.

정갈한 황토를 깔고 제석을 펼치고 제사상을 차리는 대목에서 시작하여 제사가 끝나고 오열하며 정단식을 하는 대목까지 흥겹고도 멋들어진 리듬은 정말 바른 마음씨를 가진 선비가 아니면 알지 못할 대목이 간간히 숨어 있어 더욱 재미있다. 구한 말 함정 즉, 외국 침략군의 군현에서 맛볼 서양 요리까지 들먹이는가 하면 연안 배천은 인절미가 유명한 고장인데 어찌하여 일토당치 않은 황밤 대추가 등장하는걸 보면 양주 가령 진주의 오식이 아닌가? 짐작되는 대목도 있다.

민속놀이 「포천메나리」가 전국 민속 경연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영광스런 민속의 고장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민속놀이 제전요」도 연구되어 우리 포천의 새로 발굴된 민속놀이로 빛을 보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 내 고장 문화유적 바로 알기

### 포천문화원 문화유적답사 시티투어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4월 15일 관내 시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적답사 시티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문화유적답사 시티투

어는 포천시민들 누구나 함께 참여하여 내 고장의 문화유적을 바로 알고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역사의 제조명과 자긍심 고취 등



### 초대 漢詩

### 祝松園回烝(축송원회근)



松園回烝吉祥年(송원회근길상년) 송원옹의 회근이 길하고 상서로운 해이니 繼述箕裘增不器(계술기증부기) 기구를 계승하는데 증가함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人間苦樂咸經歷(인간고락함경력) 인간의 고락은 다지났는데 積善累仁遺澤厚(적선투인유택후) 적선 누인 해서이서 유택이 많으니니

祝賀欣迎昔緒緣(축하흔영석결연) 옛 결연을 기쁘게 맞이 함을 축하 합니다. 啓蒙社會廣無邊(게몽사회광무변) 사회를 계몽하는데 넓기가 가이 없도다. 世態炎涼幾轉旋(세태염양기전선) 세태의 염양은 몇 번이나 돌았는고 康寧壽福具兼全(강녕수복구겸전) 강녕과 수복을 갖추어 겸전 하시니로다.

柳鳳鉉 포천한시사 감사